

# 광주 영락공원 화장로 노후·공급부족

광주 영락공원 화장로를 확충하고 진통 공동묘지를 권역별로 전자연적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박사는 3월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광주시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분석 결과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올해 만장 예정인 영락공원의 매장용지는 더이상 신규공급을 지양하고 필요시 현재 300여 기에 달하는 개장용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요 증가와 내구연한 도래

##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 영락공원 매장용지 올해 만장 예상돼

등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화장로 시설을 조기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 선호도가 높은 2위용 평장 봉안묘, 봉안탑, 2위용 자연장지 등은 현재 잔여 물량이 없고 봉안당도 잔여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제3봉안당 건립과 자연장지 추가 조성 등 종합적인 장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심 내 79곳에 달하는 진통 공동묘지의 무연고 분묘 등이 현유시설로 인식될 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락공원의 과밀해소 측면에서 주변 여건이 변화된 공동묘지를 권역별로 전자연적인 도심형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변화에 맞춰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장사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양적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장사시설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공간이자 추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광주시 화장률은 85.3%(전국 84.8%)에 이르는 등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사문화 시민의식 조사 결과 화장 후 유품처리 방법은 봉안시설(53.3%)이나 자연장(21.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은홍 기자

## 브라질 광산지대에서 또 댐붕괴...사상자 없어

브라질 광산지대에서 또 댐붕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아직 사상자나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

브라질 론도니아주 환경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 곳의 오리엔테 노보 댐이 배수구 건설구조가 손상되어 붕괴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당국은 그러나 메탈미그 광산회사 소유의 이 댐이 붕괴됨으로써 오염수나 모래, 댐에서 쏟아진 진흙으로 인해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미나스 게라이스 주에 있는 발리 광산회사 소유의 댐이 무너져 일대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최소 217명이 숨지고 84명이 실종되는 큰 피해를 냈었다.

발리시는 지난 주 주내의 다른 댐들에 대한 감사 결과 다른 댐 한 곳이 언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3개 도시에서 지난달 27일 주민들에 대한 대피훈련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군 총격 팔레스타인 청년 4명 사망

지난달 30일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에 이스라엘군이 총격으로 대응하면서 사망자 수가 4명으로 증가했다고 가자 보건 관계자들이 이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베탈 알-나자르라는 이름의 17살 청소년이 가자지구 동부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한 총에 얼굴을 맞고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타메르 아부 엘-카키르라는 이름의 17살 소년이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고 또다른 17살의 남성도 가자시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또 금요일인 지난달 29일 밤 총에 맞은 21살의 청년 역시 지난달 30일 새벽 숨을 거둬 지난해 이집트-가자 국경 폐쇄에 항의해 일어난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시위 1주년을 맞아 열린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모두 4명이다. 가자 보건부는 사망자 외에도 64명이 이스라엘군의 실탄 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러나 이러한 가자 보건 관계자들의 사망자 수 발표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위 주최측은 사망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가자 국경 폐쇄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美 호텔총격범들, 15시간 농성끝에 3명 피살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경찰과 마약단속요원들에 대항해서 호텔방 안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전날 저녁부터 15시간 동안이나 대치하던 마약용의자 2명 등 3명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목숨을 잃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곳 '퀄리티 인' 호텔 주변을 철물같이 에워싼 대테러 부대는 그 동안 자동차 관매소, 쇼핑 물 식당들이 둘러 있는 부근 변화가의 모든 길을 폐쇄하고 호텔 안의 용의자들과 대치, 교전을 벌였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저녁 맨체스터 주민 스티븐 마살(51)이 한 호텔방의 창문으로 기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자동권총으로 무장한 마살은 맨체스터 경찰관 한명과 마약단속요원 2명이 그와 다른 한 명에 대한 체포 명령을 집행하려 오자 저항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단속요원들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라고만 말했다.

이들은 마살에게 총을 쏘았고 그는 병원에서 사망이 선고되었다고 주 검찰청이 발표했다. 이 때 단속 경찰이나 행인들 중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자 다른 2명(남녀 각 1명)은 호텔 2층방에 숨은 채 9시간 이상을 더 버티면서, 그 중 한 명이 수시로 바깥의 경찰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마침내 대테러팀 요원들이 방안으로 화학가스를 살포했고 호텔 안으로 경찰부대가 진입하면서 지난달 28일 오전 중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경찰은 그 때까지 맨체스터 경찰관들이 방안의 사람들에게 대항을 시도하면서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안에 있던 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경찰과 단속요원은 없었다.

WMUR-TV는 마살이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의 마약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며 현재 뉴햄프셔 주 경찰국이 마살의 총격에 관해서 전담 수사관을 배정해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주 법무장관 고든 맥도널드는 "사건 전모는 아직 수사 중이며 범죄현장에 대한 조사도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 경찰, 마약류 경작 단속

### 투약자 자수기간 시행

경찰청은 마약류의 개화·수확기인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도 병행한다.

경찰은 2월 28일부터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해 오고 있다.

먼저 경찰은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배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귀비 재배 사범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했던 시절 진통 등에 효과를 봤다는 이유로 관습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인정보 노출이 없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메뉴를 이용하면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도 시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경찰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이들에게 재활 기회를 부여해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수 방법 등과 관련, ▲ 전국 경찰서·검찰청 본인 직접 출석 또는 전화·서면 등 신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 등의 신고 ▲내사 중 또는 기소중 지자에게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홍보해 출석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참새의 봄꽃놀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참새 한 마리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린 벚나무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잇단 산불’ 전남 논·밭두렁 소각행위 과태료 등 엄정대응

전남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표되고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로 산불과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보성에서 김 모(65) 씨가 묘지 화재로 숨졌고, 화순에서 밤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이 모(91) 씨가 숨졌다.

최근 고흥 도화 지숙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먼저 산림청과 임차헬기 3대가 출동, 진화에 나섰으나 0.3ha의 산림이 피해를 입

었다. 올들어 3월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4건에 이른다.

전남도는 4월 말까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일몰 후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산불 방지 인력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소각 위험이 높은 지역은 야간 감시조도 운영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원인도 되지만, 많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된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하는 일에 모든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리듬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